

# 한국 도시민의 목적지향 성향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손주환<sup>1</sup>, 하규수<sup>1\*</sup>

<sup>1</sup>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Study on Developing the Scale of Korea Citizen's Intentionality out of Inborn Ability and Mission

Jou-Hwan Sohnn<sup>1</sup> and Kyu-Soo Ha<sup>1\*</sup>

<sup>1</sup>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도시거주자의 목적 지향성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목적지향성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종교적·학문적 연구를 참조하고 기존의 생산성이나 성공적 노화 또는 삶의 질 척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를 위해 57개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목회자, 신학대학교수, 사회복지사 등의 축조심의를 거쳐 44개 문항으로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이후 응답자로부터의 효과적 설문을 위해 통계전문 교수와 중복조항 제거, 체계적인 연구 모델 수립을 위해 당해 전문 교수의 검토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27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380부를 수집한 후 요인분석을 한 결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존재의 인지”, “자율적 삶”, “자기완성”, “적극성”, “수용성”, “경제성” 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of the Korea citizen's intentionality out of their inborn ability and mission.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above intentionality, there have been many academic and religious studies for referen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roductivity, Korea elderly successful aging scale, and the scale of life qualities for review. The first 57 items for questionnaires were created thereafter. The final 27 items were confirmed, which were constantly modified by a professor of statistics and corresponding author in effective response and in removing the redundant items after the first items had been reduced to 44 preliminary items through the many an item-by-item discussions with pastors, theologians and social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and 380 records were collected. Factor analy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 was completed, and showed that there were 6 sub-factors; "recognition of being", "autonomous life," "self-completion", "initiative", "acceptance", and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reliability analysis was implemented and found to be reliable because the Cronbach's  $\alpha$  value was 0.6 or more.

**Key Words** : inborn ability, inborn mission, intentionality, scale, reliability, valid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 ~ 2012년 기간 중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565배, 1인당 국민 GNI는 287배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노령화 속도[1]·청소년 및 노인 자살[2]·노인 빈곤·청소년 비만은 세계

위, 부패지수[3]는 OECD 34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풍요가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및 사회 정의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자동적으로 달성하도록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삶의 여유가 생기는 등 출산을 꺼린다거나[4] 의학 기술 등 발전으로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 생산능력의 감소로 나타나 지속가

\*Corresponding Author : Kyu-Soo Ha(Hoseo Univ)

Tel: +82-2-2059-2313 email: ksh@hoseo.edu

Received July 15, 2014

Revised (1st September 11, 2014, 2nd September 25,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능한 성장·발전에 심각한 요소가 될 것이며 경제적 위기나 경기 침체의 지속은 부의 편중 심화·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회 내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고, 물질주의·쾌락의 동경·사이버(Cyber) 공간으로의 도피 등의 만연은 생명경시·인간 존엄성 훼손·자살 등과 같은 멘탈(Mental)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분명 이 모든 것은 처음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더욱이 사회내 거대한 세력이나 매체가 사태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음은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다.

### 1.2 연구 필요성

이와 같은 사태를 여러 관점에서 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 자신의 포기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친히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이에 맞는 지위나 능력이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인간은 어떤 지위와 능력(선택 능력 등)을 가지며 사명을 부여받아 태어났는가를 알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간 본질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즉, 인간 본래의 타고난 능력과 사명의 인지 및 이들을 일깨워 현실을 진단하는 것 등, 인간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자신 또는 그가 속한 사회가 해결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의 본질이란 영혼과 육체·창조 목적·현세 이후 삶 등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서, 현존재를 넘어선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여 종교적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고 증명하기도 불가능하다. 관련 연구가 어렵고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전된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를 인지할 수 있고, 과학 문명의 발견·발전으로 시·공간의 구조 또는 우주의 다차원성 등이 그 신비를 조금씩 벗고 있어 마냥 접근 불가능 영역에 버려 둘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신의 영역으로 그 내부를 다 들여다 볼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점차 외부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이를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인간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1.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능자로부터 받은

소중한 본능(Inborn Ability)과 사명(Inborn Mission)을 인지(認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나 행복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올리고 올바른 문화나 산업의 발전 방향 설정과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척도 또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생산적이란 파괴가 아닌 지속적 창조의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 종교적·학문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인간의 목적지향성 구성 요인의 범위와 내용을 추출한다.

둘째, 위 구성요인과 기존의 성공적 삶, 성공적 노화, 생산성 척도 등을 참조하여 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에 대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목적지향성(目的志向性)에 관한 조작적 정의

‘志向’이란 개념은 라틴어 ‘Inten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킨라 철학에 의하면 ‘영혼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애씀’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 아비체나(Avicenna 980~1037 페르시아의 철학자, 물리학자, 의학자)는 지향을 “영혼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할 경우”라고 하였고, 브렌타노(Franz Brentano, 1838. 1. 16 ~ 1917. 3. 17 독일의 철학자, 심리학자)는 “심리 현상·의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후설(Husserl, Edmund, 1859~1938 독일의 철학자)은 “의지·육구 등이 대상과 맺고 있는 의식적 관계”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 9. 26 ~ 1976. 5. 26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존재 방식(자기의 존재 자체를 최대의 문젯거리로 삼는 삶의 태도, 실존)“으로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6].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는 인간의 존재 또는 목적에 관한 근원적·본질적인 질문이다. 사람들의 오랜 관심 대상이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창조자가 봉인(마태복음 13:15)하여 놓은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역사 속에서 추적하여 왔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서 영혼과, 신의 재판을 통해 정당한 영혼임을 판정받은 자는 영과 육이 합쳐져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7]. 이와 같은 사상은 플라톤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으며, 대체적으로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불

교·힌두교 등 세상의 많은 종교도 영혼 불멸이 교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7,8]. 육체는 영혼을 위한 기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경은 신의 인간 창조 및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간은 신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에 따라 피조되었고(창세기 제1장26절 이하)흠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신의 생기(Breath of Life)를 받아 생명(Living Soul)이 되었다(동 제2장7절). 또한, 신은 시간을 창조하였고(동 제1장제5절 이하) 자유의지의 권한과(동 제2장제16~17절, 집회서 제15장제14절)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9].

요약하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조주의 형상과 선택이라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시·공간 속에서 창조를 계속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그 목적과 사명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영혼을 지향하는 창조의 목적과 이를 수행할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신성(神性)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은 내세의 모습이나 구조, 시간의 본질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그 안에 유보(봉인)하고 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말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신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조물이 그 마음에 품고(영혼을 지향하고) 현재의 삶을 통해 인간 자신의 영혼을 가꾸어 나갈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다.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지향성”이란 인간의 사명·능력이 자유의지(Free Will)에 의해 외부 세계에 나타나려는 성향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목적지향성은 자유의지의 동기가 된다. 창조의 능력과 함께 자유의지가 선택하고 의로운 목적지향성으로부터 발현된다면 인간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과 불행을 재창조한다. 이제까지의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역사적 사실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자아의 파괴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 올바른 목적지향성의 함양은 회복과 성숙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신은 인간이 그와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도(창세기 3장11-12절) 회복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음(창세기 3장24절 ;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약속을 어긴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을 영멸

시키지 않도록 한 것은 현존제에게 회복의 희망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하므로 목적지향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육체를 영혼에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2.2 목적지향성의 구성 요인

목적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인간 자신 및 인간과 그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서 작용하는 생산적 측면·삶의 질 측면·사회적 정의 실천의 측면에서 추출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종교적 및 학술적 자료와 관련된 기 개발 척도를 참조하였다.

### 2.2.1 생산적 측면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업 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창조적인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보고 창조를 강조하였으며, 인간(기업가)이 그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10]. 기업의 목적이 이기적인 이윤창출이 아닌 상생실현으로 보고 조직 생산성의 핵심요소는 다름 아닌 인간중심의 생산성·멘탈생산성 등의 향상에 지속 가능성의 비결이 있다고 하였다. 멘탈생산성지표에 의한 진단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감·충성도 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자기효능감·희망·낙관주의·회복력 등 “긍정심리 자본”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11].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실버자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2013. 7. 9, 서울경제). 실버세대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노인을 쓸모없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개인은 물론 전체 사회의 비생산화·정체화를 촉진하는 원인이므로 향후 역삼각형의 인구구조(통계청의 2010-2060 기간 중 우리나라의 인구추계) 변화에 대응하여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인간의 목적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생산적 측면의 세부 요인은, 인간은 자신이 바라고 의도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신(神)으로부터 받은 의지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합치된 의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념, 자신이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삶이 자신을 채워가는 확대 재생산의 과정으로써 창조, 자원의 보전·관리 의무 등으로 하였다.

### 2.2.2 삶의 질 측면

행복한 삶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이나 행복(Well-being) 수준의 향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목표이다. 우리 헌법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헌법전문),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33조제1항).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최근 연구는 경제적 요소·사회관계적 요소·사회심리적 요소·환경적요소·제도적 요소·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척도로는 길고 건강한 삶(출생시 기대 여명)·지식(성인 문자 해독률, 교육기회)·삶의 적정수준(1인당 국내 총생산)을 요소로 하는 인간개발지수(2008, HDI)와 인구·가구·가족·소득·소비·노동·교육·보건·주거·교육·정보·통신·환경·복지·문화·여가·안전·정부·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1979~) 등이 있다[12]. 이들 연구나 척도의 특징은 현실로 나타난 과거의 종합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측정의 객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요소와 생태 환경에도 비중을 두고 있고 (Table 1), 성숙(인간의 발달단계별로 주요 발달과업이 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의 투쟁을 통해 합의적 가치로 발달되어 가는 것)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며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자아 통합감·초월·지혜가 높다는 연구[13]는 인간의 목적 및 자아발견, 관계 등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또는 성숙도와 관련된 측면에서 세부적인 요인을 자신의 일(Mission) 발견과 집중, 근면, 사회적 역할과 인정받음, 소득,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의 유지 등으로 하였다.

### 2.2.3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측면

공의란 절대적으로 공정함과 의로움(righteousness)을 뜻하며, 치리자(治理者)는 이 공의에 따라야 하고,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책임의식·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함축시킨 용어라고 한다[15]. J.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써 공리주의(다수결원리)의 배척, 기회균등의 원칙 및 차등의 원칙(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최소극대화의 원리 및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하여 정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16].

사회적 정의는 인간에게 부여된 엄청난 권능의 자기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악의 선택으로 나타나면 사회는 전쟁·파괴, 거짓·증오, 시기·질투·살인, 쾌락·탐욕·유혹, 참소·의심·분열 등 온갖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다 하여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인격으로 성장·성숙되지 않는다. 성숙의 조건 중 하나는 자유의 올바른 사용이며 이의 올바른 사용이란 양심의 소리에 따라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다스리고 돌보는 우리 내면의 선한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닮아 현상을 형식상 창조하는 힘과 도덕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인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였다[17].

요즈음, 청소년 자살의 증가 원인은 생활고와 취업난

[Table 1] WHO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Domain	Facets incorporated within domains
1. Physical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li> <li>Energy and fatigue</li> <li>Pain and discomfort</li> <li>Sleep and rest</li> </ul>
2. Psych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dily image and appearance</li> <li>Negative feelings</li> <li>Positive feelings</li> <li>Self-esteem</li> <li>Thinking, learning, memory and concentration</li> </ul>
3. Level of Indepen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bility</li> <li>Activities of daily living</li> <li>Dependence on medicinal substances and medical aids</li> <li>Work capacity</li> </ul>
4. Soci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sonal relationships</li> <li>Social support</li> <li>Sexual activity</li> </ul>
5.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portunities for acquir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li> <li>Participation in and opportunities for recreation/leisure</li> <li>Physical environment (pollution/noise/traffic/climate)</li> <li>Transport</li> </ul>
6. Spirituality/ Religion/ Personal belie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ligion/Spirituality/Personal beliefs</li> </ul>

등 경제 문제와 학업 문제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이 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지원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18]이 근본적 이유가 될 것이다. 노인의 경우도 자살증가의 원인을 이들의 경제활동(경제성장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을 때)이 줄어들 때라고 조사하고 있으나, 개인주의 팽배·도덕적 규제 등 사회적 통합의 약화가 근본적 이유라고 하였다[19]. 자살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 삶의 질을 해치는 인간의 선택 중 최악의 결과이다.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자유의 남용이라고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적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세부 요인은, 인간의 존재 목적(영과 육, 형상에 담아야 할 내용, 존재의 다차원성, 현재가 내세를 위한 기회라는 것 등), 초월(타인의 입장을 수용, 잘못된 생각은 조속 철회 등), 숭선수범, 지혜(삶의 과정에 충실, 관심과 포용 등)로 하였다.

이상 3가지의 측면에서 목적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하면 Table 2와 같으며, 이들은 별개의 독립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Table 2] Major factors affecting intentionality

Side	Major Factors
Crea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lief and will collaborated with inborn ability</li> <li>- Desire to the present within eternity</li> <li>- Human being as the process of creating</li> <li>- Increasing efficiency</li> </ul>
Quality of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t poor and shabby</li> <li>- One's mission &amp; best role</li> <li>- Mental health, reception</li> <li>-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recognition, fellowship</li> </ul>
Social Jus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e's reason for being</li> <li>- Body and soul, modal of being</li> <li>- Contents in body for sprit</li> <li>- Transcendence</li> <li>- Initiative</li> <li>- Wisdom of life, fidelity, interest, engagement</li> </ul>

### 2.3 목적지향성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종교, 경제·사회, 심리, 자연과학 분야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인간의 목적지향성을 측정·진단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다만, 종교·정책수립·경영·사회복

지·교육 등의 목적별 연구와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사명[17]이라는 연구는, 이윤추구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인간다운 삶과 인격가치의 궁극적인 기반과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진지한 물음조차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현 사회를 분석하며 문화의 도덕화가 인류의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도덕 세계란 인격의 존엄성을 기초로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그 창조주로부터 받은 능력과 창조주가 바라는 일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영혼의 불멸성과 육체의 부활이 지니는 의미[20]라는 연구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 이탈리아 신학자)의 신학대전 등 작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현세에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 내세에 분리된 영혼, 내세에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에 관한 의미 해석과 고유한 인격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이후에 존재하여야 할 육체와 영혼의 개념을 현실 세계의 조건에 구속당하지 않는 다차원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복지국가와 정의론[21]과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을 모두 배려하는 사회 정의[22]라는 연구가 있다. J. Rawls의 정의 원칙과 A. K. Sen의 능력개념을 복지정책의 근거로 한국경제의 不正義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정의 실현 가능성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23],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자살원인분석[7]이라는 연구가 있다. 통계청, 경찰청, OECD, WHO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며 청소년, 노인 등 자살 원인으로 정신적·정신과적·모방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신념, 항상 현재 속에서 갖는 희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이론적 근거와 설문에 반영하였다.

기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노인과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파악한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24], 성숙한 노화·성공적 노화·사회 심리적 성숙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 노인의 잘 나이 들기에 대한 구성개념으로

성숙한 노화 태도의 유용성을 강조한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 태도[13],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목적과 관심을 갖고 생명의 유기체를 지속하느냐에 따라 차별된다고 하며 목적을 지향 할 수 있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형성하며 책임적 존재임을 강조한 목적지향적 교육(Purpose Oriented Education)을 위한 로드맵[25], 해외 창조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목적·범위·세부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창조경제지수의 평가부문과 세부지표를 예시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지수 개발[26], 자신의 정신건강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발현하고, 조직구성원 간 긍정정서와 활력을 주는 관계가 일상화 되어야 지속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 추구가 가능하다는 멘탈 생산성 지수의 개발·활용[11],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구성 개념 추출[27], 기타 국가 경쟁력지수·인간개발지수·WHO의 삶의 질 척도·행복한 지구 지수·국가 행복지수 등 각종 지표의 개발[12] 등의 연구로부터 그 결과를 본 연구의 설문을 작성하는데 참조하였다.

### 3. 연구방법

인간의 존재 목적 및 본원적 능력에 관하여는 종교적·학술적 연구를 통해 핵심적 범주를 설정하여 종교학 교수,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실천과정의 삶에 대하여는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의 이론을 기초로 기존 개발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문항 완성을 통계전문가와 연구 모형 분석 전문 교수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고 효과적인 설문문의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자기보고식으로 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야 할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으로 척도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요인들이 목적지향성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하였고,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의 경

우 0.5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하였다(0.3이상 유의, 0.4보수, 0.5 우수). 조사 대상을 바꿔 반복 시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신뢰도분석은 내적일관성 분석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만한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 (Ver.18.0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였다.

## 4. 문항개발

### 4.1 설문 제작

목회자 5인, 종교학 교수 2인과 1급 및 2급사회복지사 각 1인의 검토를 받아 설문문의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점차 신비를 드러내는 우주와 시간 등 구조, 창조자의 형상을 보유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미션, 생산적인 삶과 정의(Justice)를 반영한 57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삶의 실천과 관련하여 한국노인의 성공적 및 성숙한 노화 관련 많은 척도를 참조하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총 44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 4.2 전문가 자문과 수정

총 44개의 예비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문항이 난해하지 않도록 통계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아 문항을 다듬고, 문항간의 중복개념을 제거하고 동 척도의 후속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델링 전문 교수의 최종 검토를 통하여 27개의 설문을 Table 3과 같이 완성하였다.

[Table 3] Preliminary Items

Items(27)	Detailed Items
Recognintion of being(5)	Multidimensionality of being, recognition of spirit & soul, Creator's image, Contents in divine frame, World in the process of life
Autonomous life(5)	Resolute will and look, Judiciousness, Parent and couple role, Efforts to improve against bad habit
Self-completion(4)	Continuous planning Mission after this, Adaptation and mitigation, Achievement
Initiative(5)	Cooperation, Initiativ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Recognition, Fellowship
Acceptance(4)	Receptibility from past life, Abandonment of bad habit and idea Don't Lay mind injured Care of Others and the other generation
Economic feasibility(4)	Saving, Stable income, Competition for stability, Successful management of property

## 5. 조사 및 분석

### 5.1 조사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고양, 안산, 파주)지역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4. 4. 14일부터 2014. 5.31까지 실시하였다. 총 380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남녀 성비는 균등하게 수집되었고, 연령은 50세 이상이 65세 미만 6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전문대학이상이 60%로 대부분 고학력 소유자의 답변이 반영되었다. 종교는 기독교 계통이 83.9%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7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상태는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s(sociology of population)

		(n=380)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sex	Male	189	49.7
	Female	191	50.3
Age	less than 45	65	17.0
	45~49	84	22.1
	50~54	87	22.9
	55~59	74	19.5
	60~64	31	8.2
	65 or more	39	10.3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52	40.0
	Collage	166	43.7
	Graduate school	62	16.3
Marriage	Marriage	338	88.9
	Divorce/Bereavement	42	11.1
Religion	Non	42	11.1
	Christianity	295	77.6
	Roman Catholicism	20	5.3
	Buddhism	23	6.0
Job	Housewife	64	16.8
	Technical/Labor job	50	13.2
	Dealership/owner	47	12.4
	Management/pro	76	20.0
	Office	66	17.4
	etc.	77	20.2
Household Income	under 1 million	33	8.7
	won1~less than 3 "	108	28.3
	3~less than 5 "	137	36.1
	5~less than 10 "	80	21.1
	10 or more	22	5.8
Health	Bad	18	4.7
	Normal	256	67.4
	Good	106	27.9
Residence	Metropolitan area	192	50.5
	Small city	168	44.2
	Rural	20	5.3

### 5.2 분석결과

본 연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 간의 목적지향성 함양은 고유치 1.0이상인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분석과정에서 요인 적재량 0.5 이하를 나타낸 문항(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한다)을 제거하였다.

[Table 5] Results from Factor Analysis

Factor(6)/ Detailed items(26)	①	②	③	④
1. Recognition of Being				
a. I can gradually be recognizing my soul through the flesh of image inborn.	.823			
b. Having the image of Almighty, I have faith that I can accomplish something wanted and intended.	.726			
c. We believe that our ability make the creation of a moral, productive and righteous society, if we don't fill our shape of image with the lust of the flesh.	.718	3.087	12872	.822
d. We are in many mysterious dimensional world in addition to visible one.	.694			
e. I believe this world to be a process of life, not to be the end	.684			
2. Initiative				
a. I am not hard to get along with.	.693			
b. I want to take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for the others.	.679			
c. I have my ticket punched at the meeting in which I participate..	.662			
d. I want to work with others rather than alone.	.653	2.978	2438	.788
e. I have lots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ed for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leisure, religious worship, etc.	.595			
3. Self-completion				
a. I still try to learn anything if necessary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768			
b. I always have plans as new attempts for the rest of my life.	.754	2.771	34987	.824
c. I feel fulfilled in my present works(hobbies, mission, etc.).	.718			
d. I have something(mission, hobbies, etc.) to do all my life	.654			
4. Economic feasibility				
a. I think I have managed the assets and liabilities successfully.	.851			
b. I am more stable than friends of my age in economical conditions.	.797	2.762	4610	.781
c. I have been saving for the future.	.793			
d. I have a steady income..	.569			

5. Acceptance				
a. When I was pointed out I quickly discard the wrong habit and Idea.	.753	2.090	5369	.704
b. I don't keep the distressed to myself for a long time.	.659			
c. I would accept the past of my life without regret.	.592			
d. I am often acceptive to the position of the various generation or other people.	.536			
6. Autonomous life				
a. I have not made a poor and shabby attempt to show others.	.762	1.738	6035	.628
b. Being judicious, I still have no any problems.	.729			
c. I have been with all the role as a husband or wife.	.502			
d. I have been with all the role as a parent.	.508			

\* ① Factor loadings, ② Eigenvalues, ③ Cumulative variance, ④ Confidence coefficient

요인1은 육체의 모습을 통한 영혼의 인식, 전능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바라고 의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보유, 주어진 형상에 탐욕과 같은 육체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생산적·정리로운 사회의 창조 가능, 존재의 다차원성, 세상이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는 것 등 인간 삶의 존재와 목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존재의 인지(5문항)”로,

요인 2는 친구를 잘 사귀, 술선수범,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음, 의지의 합치(기도 등)가 더 큰 능력을 가짐, 사회활동 참여 등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성(5문항)”으로,

요인 3은 변화에 적응 노력, 항상 계획을 가짐, 사명에 대한 성취감, 미션 보유 등 삶에서의 자기완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기완성(4문항)”으로,

요인 4는 효율성, 혁신적 효과성, 검소한 생활, 안정적 성장 등 삶에서의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4문항)”으로,

요인 5는 잘못을 속히 버림, 속상한 일을 오래 답이두지 않음, 지나온 삶에 대한 수용, 타인 또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받아들이는 등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해 수용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성(4문항)”으로,

요인 6은 다른 사람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 정신과 육체를 잘 관리함,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 등 삶에서의 자율적인 자신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성(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전체 분산은 60.335%으로 각 문항별 요

인적재량이 0.503-0.851사이에 분포하여 타당도가 매우 우수하였고, 신뢰도 분석에 따른 Cronbach's  $\alpha$  계수는 요인별로 0.628-0.824 사이에 분포하여 아주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Table 5참조).

## 6. 논의와 결론

### 6.1 의의

목적지향성향이란 인간의 존재 목적·타고난 능력이 자유의지에 의해 외부에 나타나려는 성향이며, 목적지향성에 따라 그 결과는 질서(Cosmos) 또는 혼돈(Chaos)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 및 사회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과 정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도구의 개발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제까지 실증되지 않는 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으로만 여겨 학문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류가 이룩해 놓은 역사적 사실과 최근의 시·공간의 개념과 같은 실증이 이루어진 자연과학의 분야를 본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관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설문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Table 5에서 “1. 존재의 인지” 각 설문 및 “3. 자기완성 중 설문 b” 등 참조).

한편, 인간의 목적지향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문적 연구결과나 기존 관련 척도로부터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고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교학 교수 및 실천 현장의 목회자·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응답자가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모델링 및 통계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교수의 심사 과정을 거쳤고 우리나라 대도시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성별·연령·교육 수준 등도 고려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타당도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가 매우 높게 나온 본 척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초 목적지향성 구성 요인 검토 시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 6.2 본 연구의 적용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물질주의나 쾌락 또는 사이버 공간으로의 도피와 같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멘탈의 붕괴

를 촉진하는 것 등은 목적지향성의 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지향성의 진단 또는 측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본 척도는 개인은 물론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 및 사회 정의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지식 기반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확보, 청소년은 물론 실버 세대의 정체성 파악과 변화·발전하는 사회에의 적응,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나 단체의 비생산적 의식·관행의 진단 도구로 사용하면 이를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6.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가능한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교육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4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표본 수(380)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대부분 기독교인의 응답이어서 타 종교를 포함한 의견도 수렴 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표집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Economic Team, "Rapid aging", Hankyung, 2013 Apr. 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11259g>
- [2] News, "Suicide rate", Dong-a, 2014 Jul. 2,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702/64892413/1>,
- [3] Impeter,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n Korea", 2013 Dec, <http://impeter.tistory.com/2382>, cpi=46/177
- [4] B. K. Kwon, "Fertility", HuffingtonPostKorea, 2014 Jun. 16. [http://www.huffingtonpost.kr/2014/06/16/story\\_n\\_5497713.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4/06/16/story_n_5497713.html),
- [5] J. W. Lee, "Time and Space", The Hankyoreh, 2005 Jun. 2,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100003/2005/06/09100003200506021915215.html>
- [6] Dictionary of Literary Criticism, "Intentionality", Kookhak, 2006 Jan. 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920&cid=272&categoryId=272>
- [7] Encyclopedia Wikipedia, "Soul", Wikimedia Foundation, Inc, 2014 Apr. 10,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D%98%BC%EC.98.81.ED.98.BC.EB.B6.88.EB.A9.B8.EC.84.A4>
- [8] C. H. Sung, "Leib und Seele des Menschen und die Trennung im Tode : Individuelle-jenseitige Eschatologie im Neuen Testament", p.59-86, Vol. 44 No.1, PCTS, [http://www.puts.ac.kr/js\\_nondan/files/%EC%9E%A5%EC%8B%A0%EB%85%BC%EB%8B%A844-1-3%EC%84%B1%EC%A2%85%ED%98%84.pdf](http://www.puts.ac.kr/js_nondan/files/%EC%9E%A5%EC%8B%A0%EB%85%BC%EB%8B%A844-1-3%EC%84%B1%EC%A2%85%ED%98%84.pdf)
- [9] King James Version, "The Holy Bible", p.1-2, Worl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1998.
- [10] K. S. Ha, "Theory and Practice of Entrepreneurship", p.22-48, ISBN978-89-94236-38-4, Myungkyungsa, 2012 Aug. 30
- [11] K. E. Mang, J. Y. Jung, "Korea Mental Health & Productivity" KPC, <http://kpcmd.blog.me/220004305654> (cited 2014 May 19)
- [12] Y. H. Kim, K. J. Yun, K. Y. Kim, "OECD Nation's Well-being Index", p.9-2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kQFjAB&url=https%3A%2F%2Fwww.kihasa.re.kr%2Fhtml%2Fjsp%2Fshare%2Fdownload\\_publication.jsp%3Fbid%3D200%26ano%3D1358%26seq%3D1&ei=FRuWU-flI4KOkwXzsoDYDg&usg=AFQjCNEMsIs2yFVrAb7PPm6woPR\\_Kqk3A&bvm=bv.69837884,d.dGI&cad=rjt](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kQFjAB&url=https%3A%2F%2Fwww.kihasa.re.kr%2Fhtml%2Fjsp%2Fshare%2Fdownload_publication.jsp%3Fbid%3D200%26ano%3D1358%26seq%3D1&ei=FRuWU-flI4KOkwXzsoDYDg&usg=AFQjCNEMsIs2yFVrAb7PPm6woPR_Kqk3A&bvm=bv.69837884,d.dGI&cad=rjt)
- [13] J. S. An, Y. S. Chong, S. G. Se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tured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ed ag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 vol. 26. No. 2, 127-143
- [14] King James Version, "The Holy Bible", Psalms 37:28(p.563) and Psalms 99:4(p.592) Isaiah 61:8(p.699-700), Job 34:17(p.541), Proverbs 29:1(P.637), Jeremiah 5:1(p.708), Worl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1998.
- [15] Wikipedia, "Social Justice",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95%EC%9D%98>
- [16] D. I. Jang, "Theory of Justice", p.225-273,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17] J. Park, "Bestimmung des Menschen : Zur Mundigkeit der Kultur und Wiederaufnahme der Moralitat",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 and Future No. 1, 2008.12, 73-121 (49 pages), <http://www.dbpia.co.kr/Article/1421796>
- [18] T. M. Song, "The Comparative Analysis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Baby boom and Echo Generations", p.1-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2013. Mar. 08
- [19] S. J. Lee, K. H. Jung, E. J. Kang, S. Kang, S. Y. Lee, Y. A. Kim, "Socio-economic factors and ploicy implication of elderly suicide", p.49-5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 [20] S. C. Park, "The Incorrputibility of the Soul,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Concept of the 'Person' in the works of Thomas Aquinas”, p.99-151, 1226-7007 KCI,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No.45, 2012,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56404174&dir\\_id=0&page=0&query=%EC%98%81%ED%98%BC%20%EB%B0%95%EC%8A%B9%EC%B0%AC&ndsCategoryId=10103](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56404174&dir_id=0&page=0&query=%EC%98%81%ED%98%BC%20%EB%B0%95%EC%8A%B9%EC%B0%AC&ndsCategoryId=10103)

- [21] K. Y. Shin, J. W. Shin, D. R. Ju, S. H. Lee, “Welfare and Social Justic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p.48-56, <https://www.google.co.kr/webhp?sourceid=chrome-instant&ion=1&espv=2&ie=UTF-8#newwindow=1&q=%EB%B3%B5%EC%A7%80%EA%B5%AD%EA%B0%80%EC%99%80%20%EC%82%AC%ED%9A%8C%EC%A0%95%EC%9D%98>
- [22] K. S. Hwang, “Fair and equitable, the conditions of social justice”, 2011, [https://lawtimes.co.kr/LawInfo/LawMagazine/Pdf/05-01\(1\).pdf](https://lawtimes.co.kr/LawInfo/LawMagazine/Pdf/05-01(1).pdf)
- [23] Y. S. Jang, “Suicide Status and Policy Issue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Nov. 23, <https://www.google.co.kr/webhp?sourceid=chrome-instant&ion=1&espv=2&ie=UTF-8#newwindow=1&q=%EC%9A%B0%EB%A6%AC%EB%82%98%EB%9D%BC%EC%9D%98%20%EC%9E%90%EC%82%B4%EC%8B%A4%ED%83%9C%EC%99%80%20%EC%A0%95%EC%B1%85%EA%B3%BC%EC%A0%9C>
- [24] I. S. Kwak, “Life Satisfaction of Future Elderly and the Elderly”, p.107-120,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25] S. H. Han, “Roadmap for Purpose Oriented Education”, p.157-189, PCTS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http://www.puts.ac.kr/pctl/ens\\_admin/upload\\_ResearchData/05\\_Pro\\_HanSH.pdf](http://www.puts.ac.kr/pctl/ens_admin/upload_ResearchData/05_Pro_HanSH.pdf)
- [26] Y. M. Ko, “Creativity Index, Issue Paper 201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May
- [27] D. B. Kim, “The study on thr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p.211-231, Vol.60. No.1, Korea Journal of Welfare. 2008

**손 주 환(Jou-Hwan Sohn)**

[정회원]



- 1973년 2월 : 전남대학교 (전기공학사)
- 1996년 9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석사)
- 1998년 12월 : (미) UPENN 교육과전
- 1980년 7월 ~ 2012년 12월 : 국토해양부(서기관)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관심분야>

행정, 경영, 사회복지, 정보통신, 전기

**하 규 수(Kyu-Soo Ha)**

[종신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